



보도 일시	(지 면) 12. 6(화) 조간 (인터넷) 12. 5(월) 12:00	배포 일시	-
담당 부서	상생협력정책관 상생협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손후근 (044-204-7920)
		담당자	사무관 최 승 (044-204-7926) 주무관 박혜정 (044-204-7912)

‘삼성전자’, ‘에스케이씨(SKC)’, ‘포스코’, ‘국가철도공단’, ‘국민은행’ 10월달 「이달의 상생불」로 선정

- 상생협력 활동 우수사례 발굴·격려를 통해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 우수사례 포상
- 동반성장 우수기업 참여 확대 및 우수사례 선정 요건 강화로 중소·소상공인 현장의 동반성장 체감도 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0월달 「이달의 상생불」로 ‘삼성전자’, ‘에스케이씨(SKC)’, ‘포스코’, ‘국가철도공단’, ‘국민은행’ 총 5개사의 상생협력 활동을 선정했다.

이달의 상생불은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격려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 우수사례에 대해 매달 포상하는 행사로 8월부터 시행됐다.

이달의 상생불은 참여 희망 기업들이 매월 15일까지 자사의 상생협력 실적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제출하면 중요도·난이도, 이행노력·성과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달의 상생불로 선정된 기업은 상생협력 활동을 기념·포상하는 ‘상생불’을 받고, 동반성장 포상 시 가점 및 동반성장 우수사례집에 소개되는 등의 혜택도 받는다.

10월의 상생협력 활동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삼성전자’는 미활용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에 무상으로 양도해 중소·벤처기업이 특허를 기반으로 새 분야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114건의 기술 양도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총 32개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자사가 보유한 특허 51건을 무상으로 양도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은 자사가 활용하기 용이한 특허를 기반으로 신제품 개발을 진행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그 밖에도 삼성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협력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분을 납품단가에 정기적으로 반영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10월부터 수탁 협력회사 8개사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도 참여 중이다.

② ‘에스케이씨(SKCC)’는 2017년 설립한 ‘신소재 기술기반 개방형작업공간 (오픈플랫폼)*’을 활용해 참여기업에게 기술개발(R&D) 분석, 사무공간 제공 등을 제공하고,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체제(플랫폼) 참여 전문기관(18개 기관)과 매월 시장정보, 기술가치 분석, 금융조달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관계형성의날(네트워킹데이)을 실시하고 있다.

* 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스케이씨(SKCC) 및 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 (R&D), 경영기반(인프라), 특허, 투자 연계 등의 핵심역량을 지원

특히, 이동수단(모빌리티), 반도체, 친환경 분야 중심 기술토론회(세미나), 현장평가(필드테스트) 등을 통해 공동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안전/환경 분야 전문 자문 등을 실시함으로써 참여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약 1.8배(329억원 → 600억원), 투자 유치는 약 17배(평균 21억원 → 350억원)로 성장했다.

③ ‘포스코’는 철강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이들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을 돕고자 1,500억원 규모 철강 이에스지(ESG)상생협력기금(펀드)을 조성했다.

현재 41개 기업들이 철강 이에스지(ESG)상생협력기금(펀드)을 통해 시중금리 대비 감면된 우대금리로 기업당 최대 2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2년간 최대 42억원 수준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포스코는 5,660억원 규모 상생협력 특별기금(펀드)을 조성해 354개 기업이 4,415억원을 저금리로 대출받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중고에 놓인 철강금속 업계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에 힘쓰고 있다.

④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개량사업의 현황과 계획, 사고사례를 협력사들과 공유해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협력사들을 포함한 전 구성원들이 철도 개량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철도 개량사업의 품질 향상을 도모했다.

또한, 이에스지(ESG) 관련 자체 역량 강화가 어려운 소규모 협력사 60개사를 대상으로 이에스지(ESG) 교육을 실시했다.

철도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철도시설 전 분야를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에 대한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논의하는 등 철도 시스템 분야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및 이에스지(ESG) 경영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⑤ ‘케이비(KB)국민은행’은 ‘손백맞장구(하이파이브) 케이비(KB)굿잡 취업학교’를 실시해 특성화고 3학년 112명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손백맞장구(하이파이브) 케이비(KB)굿잡 취업학교는 13회에 걸쳐 1,430명이 수료하고 이중 498명이 취업해 특성화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14기 취업학교에서는 참가자에게 온라인 취업캠프(2회)를 통해 비대면(언택트) 채용 과정(프로세스), 직무역량분석, 입사지원서 상담(컨설팅) 등 취업 필수 교육을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이달로 3회째인 「이달의 상생불」은 다음달부터 참여기업이 확대되고 선정기준이 강화되는 등 대폭 개편된다.

우선, 「이달의 상생불」 참여 대상을 현재 참여 중인 자발적 상생협력기업에 더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을 맺은 신(新)동반성장 선도기업과 최근 2년간 동반성장 평가에서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174개 기업·기관으로 확대한다.

다음으로, 선정기준에 결격 사유를 신설해 최근 3개월 이내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임직원 또는 법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영 장관은 “「이달의 상생불」 참여 대상에 동반성장 우수기업들을 새롭게 포함하고 우수사례 발굴·선정을 위한 요건 강화를 하는 등 중소·소상공인 현장의 동반성장 체감도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이달의 상생볼」 개요

- (추진목적) 기업의 매월 상생협력 활동실적 중 우수실적을 발굴하고 기념·포상을 통해 상생협력 활동 격려
 - (참여대상) 자발적 상생협력기업 + 新동반성장 선도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협약기업) + 동반성장 평가 우수기업·기관
 - * 참여기업 세부 명단은 <참고> 참조
 - (참여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매월 15일전까지 상생협력 활동 실적 (1건 이상)을 협력재단에 제출 (이메일)
 - * 매월말에 기업 담당자에게 상생볼 참여방법 등 안내
 - (선정방법) 상생협력 분야 전문가를 활용해 상생협력 활동의 중요도·난이도, 이행노력·성과 등 정성적 평가 수행
 - 매월 우수사례 (상위 5건 이내)에 대해 ‘상생볼’ 지급
- ※ <참 고> ‘상생볼’ 이미지



- (인센티브) 동반성장 포상 가점, 우수사례집 발간 등에 활용

□ (개편목적) 동반성장 우수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우수사례 발굴·선정을 위한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도 제고

□ (주요내용) 참여기업 확대 및 선정기준 강화

- 참여대상 확대 : (현행) 자발적 상생협력기업 (35개) → (개선) 현행 + 新동반성장 선도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협약기업) + 동반성장 평가 우수기업·기관 (174개*)

* 최근 2년도 평가에 '우수' 이상 등급 기업·기관 : 대기업 (122개), 공공기관 (52개)

- 선정기준 강화 : (현행) 평가결과 80점 이상, 상위 5건 → (개선) 현행 + 사회적 평판 등 결격기업 제외*

- 동반성장지수 결격사항을 활용하되 기간을 최근 1년 → 3개월로 조정

* 결격사항은 '자가점검표', 관계기관 협조, 언론기사 등을 통해 확인·점검

<결격 사항>

- 최근 3개월 이내 동반성장 관련 법령*에 따라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공정위/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상생법, 생계형적합업종법

** 경고조치,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공표·처분 확정

- 최근 3개월 이내 임직원 또는 법인이 협력사와 관계에서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법원의 판결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선고)을 받은 경우 (1심부터 적용)

- 최근 3개월 이내 불공정거래 등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경우

□ (향후일정) 개편내용 홍보 ('22.11월) → 개편내용 적용 ('22.12월~)

○ 동반성장 평가 우수기업·기관

기아, 농심, 롯데GRS,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건설부문), 삼성물산(패션부문),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S, 이노션, 자이씨앤에이(前에스앤아이건설), 제일기획, 파리크라상, 포스코,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현대트랜시스, CJ제일제당, DL이앤씨, GS건설,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화학, LG CNS, SK에코플랜트, SK주식회사, SK지오센트릭, SK텔레콤, SK하이닉스, 경신, 계룡건설산업, 대상, 동부건설, 두산, 두산에너지(前두산중공업), 롯데건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정보통신,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하이마트, 롯데홈쇼핑, 삼성SDI, 세메스, 신세계디에프,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인터내셔널, 아모레퍼시픽, 엔에스쇼핑, 오투기, 원익IPS, 유한킴벌리, 이니스프리, 이랜드월드, 이마트24, 중흥토건, 코리아세븐, 태영건설, 포스코ICT, 풀무원식품, 한국인삼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 한샘, 한신공영, 한양, 한화, 한화건설,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현대미포조선, 현대백화점,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현대홈쇼핑, 호반건설, 화신, 효성중공업, BGF리테일, CJ온스타일, CJ올리브영, CJ푸드빌, DL건설, GS리테일(GS SHOP), HL만도(前만도), HSD엔진, KCC, KCC건설, LG전자, LX하우시스, SK실트론, SPC삼립, 네이버, 세메스, 유한킴벌리, LG전자, 두산인프라코어, 롯데GRS, 만도, 신세계건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오리온,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카카오, 코웨이, 포스코케미칼, 하림, 한라, 호텔신라, HDC현대산업개발, LS일렉트릭,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전KDN,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해양환경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 新동반성장 선도기업(협약기업, '22.10월~)

현대차·기아

○ 자상한기업

ARM, CJ ENM, CJ대한통운, KAI, KT, LG화학, LH, LX인터내셔널, NHN커머스, SGI서울보증, SK E&S, 에스케이씨(SKC), SK에코플랜트, 국가철도공단, 국민은행, 기업은행, 대상, 바디프랜드, 비자/쇼피파이, 삼성전자, 소프트뱅크벤처스, 수자원공사, 스타벅스, 신한금융, 우리은행, 우아한형제들, 이마트, 켈리,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프레시지, 하나은행, 한국전력공사, 한화시스템, 호반그룹